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 문 연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개소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28m, 7층)인 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건립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소식에서는 목구조 시공과 내화, 내진 설계 등 목조건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본관동,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교육동,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숲속도서관 등의 시설을 살펴봤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는 공공건축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목구조 기술을 활용해서 지은 국내 최고층의 목조건축으로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목재 1,449m³를 사용했고, 그 중 67%인 968m³을 국산목재로 사용했다. 국산목재를 사용함으로써 242톤(t)의 탄소를 저장하게 되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했다.

오늘 개소한 센터는 증가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과정은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 및 산림복지 전문자격 보유자의 역량강화 지원 △산림복지 관련 진로교육, 산림문화·건강·예술 강좌 등의 평생학습 제공 △주민 대상 산림복지 정보습득 및 자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림복지사업 참여자의 산림복지 사업 역량강화 교육 등이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백서, 사진, 홍보영상 등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 기관으로써 국민에게 필요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복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분야로 공공부문부터 목조건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국내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랜드마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강창모 (042-481-4210)
	산림복지국 산림복지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유세원 (042-481-1839)
	산림청	책임자	과 장	이성진 (042-481-4200)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수 (042-481-420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책임자	팀 장	이경훈 (042-719-4010)
	전략기획팀	담당자	담당자	김정경 (042-719-401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